

본문: 요한복음 1 장 9-13 절

제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

어린 시절 두부 심부름은 항상 막내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두부 심부름 하면 항상 이렇게 추운 날 갔던 기억 밖에 없습니다. 큰 그릇 하나 들고 두부를 그릇에 담아오는 심부름이었는데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순종한 결과 큼지막한 두부가 곁들여진 김치찌개를 그날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항상 감미로운 것이죠.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 이뤄지는 현실이 되도록 순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번역되고 있는 로고스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레코-로만 종교 안에서 신에게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야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로고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성적이며 영적인 것이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르심에 사용된 로마서 12 장 1 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합당한(reasonable) 영적인(spiritual)이라 번역되는 말이 ‘로기코스(Logikos)’인데 로고스의 변형입니다. 그리스 사상 가운데 찢어든 로마인들에게 reasonable 하고 spiritual 한 예배는 로고스를 이용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로기코스를 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의 예배로 이해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기 비움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된 말씀(utterance)이 창조로 실현되기 위해 로고스이신 아들의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뤄내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 장 9 절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번역된 알레띠노스(ἀληθινός)는 진리란 뜻을 가진 알레떼이아(Alethia)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알레띠노스는 부정을 뜻하는 A 와 감춰져 있고 밀봉되었다를 뜻하는 란따노(λανθάνω)가 합쳐진 말입니다.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참된 것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춰진 참 빛 예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셔왔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9 절은 말합니다. 그 빛이 세상속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헬라말 코스모스(κόσμος)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코스모스는 질서가 잡히고 안정된 우주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떠나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 장 16 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코스모스가 쓰였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진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참 빛이 어두움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

10 절과 11 절 말씀은 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도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둠 속의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못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는 눈을 감고 있거나 무언가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빛이 와서 자기 백성을 비추고 있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인다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파라람바노(paralambano, παραλαμβάνω )는 전치사 para 와 take, accept 라는 뜻을 가진 lambano (λαμβάνω)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람바노만 써도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라는 뜻이 되지만 헬라어에서는 뜻을 강조하거나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 이렇게 전치사를 동사 앞에다 붙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Para 는 beside, beyond 등의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 장 19 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비추기 위해 빛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백성들은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 장 16 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들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런 맥락 아래서 너무나 중요한 12 절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전 번역에는 ‘맞아들인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참 빛을 외면하지 않고 Accept 하고 Welcome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람바노 (λαμβάνω)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Accept 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하여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름이란 것은 행위나 사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행하신 사역과 행위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믿고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시는 사역과 행위를 보고 나도 그를 카피하며 따라가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따라 나도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빛 되신 예수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즐겁게 여기는 것이지요. 자주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적인 삶, 예수 따름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다 이 땅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로 자주 묘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구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5 장 17-18 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들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가야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티브를 사용하실 때는 아들의 특권을 사용하는 특권 모티브가 아니라 아들로서 절대 복종하는 순종 모티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나 국회의원만 되어도 엄청난 권세를 휘두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고 치고 경찰서에 잡혀간 장관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장관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어이~ 누구냐면 어이~ 서장 나오라고해 어이~”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장면이죠? 이런 경우 아들의 특권 모티브로 상대방을 누르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권 모티브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 모티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 절)**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을 종의 형태로 낮춰버립니다. 종의 모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빌립보서 2 장 6 절). 하나님의 아들이 특권이지만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할 근거로 여기신 예수님의 삶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많으신데 물리에서 오비탈이라는 게 있죠. 원자의 핵 주변에 있는 양자들이 오비탈을 이동하며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비탈은 양자가 담겨있는 방인데요 높은 오비탈에서 낮은 오비탈로 이동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바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옮겨 갈 때 발생하는 양자나 전자의 원리와 같다는 거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대단한 건데, 사람의 몸에서 그치지 않고 종의 몸으로 더 낮추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해버리시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빛이 발생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종과 순종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발생하는 것이죠.

4.

예수님은 특권 모티브가 아니라 순종 모티브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삶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호로자식이라 합니다. “옛끼 호로자식아 누가 그렇게 갈키디?”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배우지 못해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는 욕이 바로 호로자식이었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무거운 순종 말고 진짜 좋은 것은 없습니까? 좋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택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보호를 받을 권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세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리는 권세를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보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 본 사람은 그 감미로움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나의 길을 안내하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은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갖는 권세입니다. 제 아들들이 저와 친밀한 이유는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옛말에 쇠살까지 성실히 살아온 사람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맺어온 성실한 인간관계가 안전망이 되어 그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스펙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출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의 성공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해도 성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세를 받습니다. 구약성경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정말 조금의 전답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 전답이라도 자녀들에게 골구루 나눠주시길 간절히 원하시죠.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넷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교회만한 공동체를 세상에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애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로체스터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한인들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누리며 산다해도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순종의 의무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통치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를 여러분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5.

13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떤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인 혈통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득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눈을 열어주신 자들이 참 빛에 조명되어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도우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조명이 더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 장 12 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을 따라가는 삶이 누리시는 축복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 장 9-10 절에서는 **"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둠의 세상 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어두운 세상 속으로 우리는 흠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빛이 되라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 물러나고 참 빛이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